

속리-법주사 문화해설

1. 기획목적

- 속리산국립공원 화양동 계곡의 역사문화와 관련된 계곡 홍보
- 탐방객에게 속리산국립공원에 대한 이해와 국립공원 보호의식 함양
- 단순 물놀이 탐방객에게 화양동 계곡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탐방 이용 행태 개선 홍보

2. 프로그램 개요 및 운영방법

- 형 식 : 화양동 계곡의 자연·문화경관을 주제로 한 해설프로그램
- 운영주체 : 자연환경해설사
- 운영기간 : 연중(오전 10:00~오후 14:00)
- 장 소 : 속리산국립공원 화양동 계곡
- 참 가 비 : 없 음
- 참가대상 : 탐방객

3. 운영현황 (2013년도 9월 말 현재)

- 157회, 5908명

4. 프로그램 평가방법

- 체험일지를 통한 감상평가(느낌정리)
- 필요시 설문지 배부
- 홈페이지에 방문객에 대한 해설프로그램 관련 평가배너 설치 활용
- 직원, 자연환경해설사, 자원 활동가, 참여자등 공동평가도 병행

화양동 계곡 문화해설 시나리오

1.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속리산국립공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날씨가 아직 덥죠?! 오늘 여기에 오니까 기분이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1시간 동안 이 계곡을 함께 거닐면서,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 ○○○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도 함께 인사)

2. 국립공원 소개(화양계곡 입구)

오늘 여러분이 오신 이 곳은 국립공원 중에서도 속리산국립공원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계곡이라고 자부하는 화양동 계곡입니다. 어째서 가장 아름다운 계곡이라 하는지 저와 함께 이 계곡을 거닐어보시면 알게 될겁니다.

-국립공원이 무얼 하는 곳일까?

자, 그럼 먼저 국립공원이 뭘 하는 곳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해설도 하구요, 쓰레기 청소도 하고, 야생동물 관찰도 하구요,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 좋은 공기도 마시며 쉴 수 있게 하기 위해 노력도 하구요.

네 그렇습니다. 다 통틀어서 국립공원은 우리의 소중한 자연을 보전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대대손손 물려주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자연, 문화자원이 있는 곳 21개소를 지정했답니다. 우리나라 생태계가 심하게 파괴되었을 때 최소한 이 곳들만이라도 남아 있다면 어느정도 복구가 가능한 핵심생태축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호해야하는 곳들이죠. 그 중에서도 이 속리산국립공원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21개소 중에서 7번째로 지정된 곳입니다. 속리산의 뜻은 속세를 떠나는 산이라 해서 붙여진 이름이구요.

속리산 국립공원에서 이 화양동은 우암 송시열과 얽힌 재미있는 이야기가 아주 많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제 1곡 경천벽부터 마지막 종점인 제 9곡 파천까지 걸으면서 우암과 이곳에 얽힌 재미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천천히 계곡을 거닐어볼까요?



회양목 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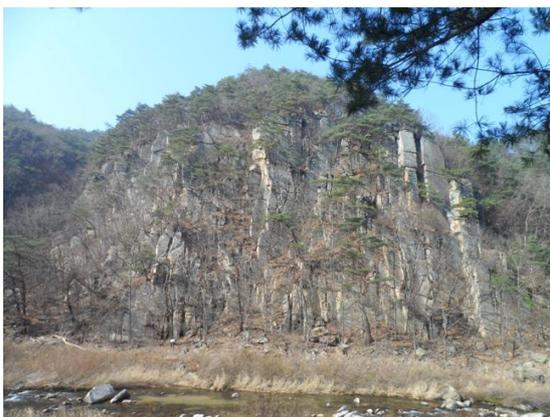
회양목은 회양목과의 상록활엽관목으로 전국에 분포하고, 특히 알칼리성인 석회암지대에서 잘 자라는데, 화양동이 위치하고 있는 괴산군은 석회암질의 토양으로 회양목이 자라기에 최적지다.

3. 화양동이름의 유래를 알아보까요?

(1곡 경천벽으로 천천히 걸어가며)

옛부터 이곳에는 황양목, 지금은 회양목이라 부르는 나무가 많이 자생해서 황양동이라 불렀었는데요. 지금으로부터 600여 년 전, 우암 송시열이 공부하기 위해 이곳에 머물면서 화양동이라 지었답니다. 성리학을 만든 주자가 중국의 무이산이라는 산에서 공부하며 무이산의 가장 아름다운 경치 9곳을 뽑아서 무이구곡이라 명명했다고 하네요. 우암 송시열 역시 성리학자다보니 중국의 무이구곡과 주자에 화양동과 자신을 일치시켜서 화양구곡이라 불렀답니다. 이 이름의 뜻은 지금은 명나라가 망해서 중화사상이 졌지만, 언젠가 다시 밝은 날이 오듯이 중화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뜻에서 중화의 ‘화’자와 일양내복의 ‘양’자를 따서 화양구곡이라 명명했죠. 여기서 구곡이란 아홉개의 아름다운 경관을 말한답니다.

5.제 1곡 경천벽(경천벽 데크)



경천벽



화양동문 석각

자, 이곳이 바로 화양구곡의 제 1곡이자 진정한 입구라고 할 수 있는 경천벽입니다.

바위가 마치 벽처럼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듯 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랍

니다. 잠깐 조용히 감상해봅시다. 저 높은 바위벽 아래 고고하게 흐르는 강물에 의해 둥글게 깎인 자갈들도 보이구요. 둥근 자갈 위로는 생동하는 물결로 여울이 발달해 있네요. 바위벽 곳곳에 수목이 자라서 화강암의 흰 빛깔과 더불어 위압감을 주기보다는 아늑한 느낌을 주는 것 같네요.

이 화양계곡을 학문의 단계로 풀이하기도 했는데요. 그 중 경천벽은 학문으로 보면 초학으로, 경천의 뜻인 ‘하늘을 떠받치는 든든한 벽’처럼 성리학을 떠받치는 벽이 되리라는 학문의 길에 처음 들어서서 선비의 의지가 보이는 것만 같네요.

저곳 어딘가에 우암 송시열이 '화양동문' 이라고 세긴 석각이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한번 찾아보세요.

4. 화양동의 터줏대감 느티나무(자연관찰로 초입)



화양동 자연관찰로

(아름드리 느티나무 길로 들어서며)

이 화양동이 위치한 지역의 이름이 뭔지 아는 분? 네, 괴산이죠. 이 괴산의 괴(槐)자가 느티나무에서 따온 것입니다. 괴산, 말 그대로 느티나무가 많은 산이란 뜻이죠. 그만큼 괴산에 느티나무가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느티나무는 옛부터 우리 선조들이 아주아주 사랑했던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한번 보세요. 크고 아름답죠? 이 나무들은 100살이 넘는 나무예요. 수명이 길고 나무도 커서 마을 입구에 심어서 이정표 역할도 했구요. 여름이면 넓은 그늘을 만들어 정자나무로 마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사랑방처럼 쓰기도 했고, 여기서 공동체의 삶을 꾸려가는 지혜를 얻기도 했다네요. 서민들 뿐만 아니라 선비들도 '학자수'라고 부를 정도로 선비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받은 나무이기도 하답니다.

5. 제 2곡 운영담



운영담



운영담 석각

이곳이 제 2곡 운영담입니다. 저 상류에서 장쾌하게 내려오던 물줄기가 바닥을 깊게 깎고, 잠시 휴식을 취하듯이 모여서 소를 이룬 곳이랍니다. 바위가 마치 삼형제 같네요.

학문의 길에서는 이곳을 보고 학문의 세계는 높고 아득한데, 흐르는 물이 아득히 흘러만 가고 있어 미숙한 선비가 느끼는 학문의 길이 아득함이 느껴진다고도 했답니다.

여기도 앞서 보셨던 화양동문처럼 na운영담이라고 석각이 세겨져 있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그런데 저 글자, 앞서봤던 글자랑 뭔가 다르지 않나요? 먼저봤던 글자는 또박또박하고 깔끔한 글씨인데 이걸 무슨 그림같네요. 저건 전서체라는 글씨체로 우암 송시열이 쓴 글씨가 아니랍니다. 우암 송시열은 화양동이란 이름만 붙이고, 구곡들 각각의 이름은 붙이지 않았거든요. 그의 사 후 제자들이 9곡의 이름을 하나하나 붙였답니다.

저기 있는 저 글씨는 당시 명필 중 한명인 단암 민진원이라는 사람의 글씨랍니다. 나머지 구곡들의 이름도 다 그의 글씨구요. 여러분 장희빈 아시죠? 단암 민진원은 그 장희빈의 가장 큰 적이었던 인현왕후의 오빠랍니다.

이 운영담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주변에 모래사장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주변경관을 조망하며 쉬기 좋은 곳 인데요. 그러다보니 여름만 되면 몸살을 앓는 장소 중 하나랍니다. 사람들이 여름철에 피서를 와서 이 곳에서 수영을 하고, 물래 취사를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애완동물을 데려오고....그나마 취사는 집중적인 단속으로 거의 사라졌지만, 수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네요. 여러분, 국립공원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영은 금지가 되어 있답니다. 발만 담글 수 있어요. 운영담은 기본적으로 유속이 느리지만 깊이가 상당히 깊어서 위험하기도 하고, 계곡에 살고 있는 여러 생물들이 살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애완동물은 털이나 타액 등에 공원 내 생물들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나 외래종의 종자가 붙어서 들어와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애완동물의 출입을 막고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 국립공원의 계곡에 방문해서 수영과 취사, 애완동물은 반입하지 맙시다.

6. 하마비



저 앞에 보이는 유적은 우암 송시열 선생의 제자들이 세운 화양서원이라고 한답니다. 그런데 왜 저기서 이야기하지 않고 여기서 이 말을 하냐하면, (하마비를 만지며)이 비석 보이시죠?. 이 비석의 이름은 하마비라고 하는데요. 동물 하마가 아니라 下馬, 말에서 내리라는 뜻을 가진 비석입니다. 어째서 이런 비석이 있냐하면, 서원이라는 곳이 말하자면 사립대학 겸 옛 성현들, 그러니까 신을 모신 곳이기 때문에 "이 곳부터는 말에서 내려서 예를 갖추시오." 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석은 역사적인 장소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흥선대원군 아시나요? 대원군이 젊은 시절에 한량으로 지냈을 당시에 이 화양계곡에 찾아 오셨다가 '난 왕족인데 말에서 내릴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에서 내리지 않고 그냥 지나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때 화양서원을 다니던 유생들이 대원군의 말을 발로 차버렸다는 말도 있고, 대원군을 끌어내리고 때려서 수모를 줬다는 이야기다 있습니다. 대원군이 집권한 후 서원 철폐령을 내렸을 때 가장 먼저 철폐된 서원이 바로 이 서원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던 화양서원을 본보기로 가장 먼저 철폐한 거겠지만, 아마 그때 받았던 수모를 되값아 주려는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7. 화양서원

방금 저 앞에서 흥선대원군과 이 화양서원에 얽힌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어째서 이 서원이 그렇게 세가 강했는지 알아봐야 하겠죠? 그러기 위해선 먼저 우암 송시열이란 사람에 대해서 알아봐야 한답니다. 우암 송시



화양서원



화양서원 묘정비

열은 조선 후기에 정권을 잡은 서인 중에서도 강경 보수파라고 할 수 있는 노론의 영수였답니다. 시대의 풍운아라 할 만한 인물로, 인조부터 숙종까지 네 사람을 섬겼답니다. 사후 서인과 노론이 종신집권하면서 추종자인 서인 세력들에게서는 성인으로 추대되어 송자(宋子)라고 불리기도 했답니다. 실록에 3000번이나 그 이름이 등장할 정도로 이런저런 파란을 몰고 다니던 사람으로, 생전에도 대단했지만, 사후 정권을 유지하던 노론의 대다수가 음으로 양으로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 우암 송시열의 위패를 모셨고, 거기에 우암 송시열이 주창하던 소종화 사상의 뿌리라 할 수 있는 만동묘 또한 이 곳에 존재하다보니 세가 강할 수 밖에 없었답니다.

8. 만동묘



만동묘



만동묘묘정비

자, 그럼 이제 이 서원의 가장 꼭대기인 만동묘로 몰라가 봅시다.(만동묘로 올라감)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정말 아름답죠? 우암 송시열이 어째서 이곳에서 공부했는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아~! 그리고 방금 전에 올라오실 때 보면 계단이 다른 곳 보다 유난히 좁았죠?. 만동묘는 명나라 신종황제와 마지막 황제 의종의 위패를 모셔, 신성한

곳이라 누구를 막론하고 예를 갖추어 들어가게 하기위해 계단의 폭을 짧고 높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려면 계단이 좁고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고 발밑을 볼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왜 서원에서든 가장 상석에 명나라 황제의 위패를 모셔뒀냐 하면, 신종은 임진왜란 때 조선에 원군을 파병한 황제고, 의종은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입니다. 당시 상황이 청나라가 들어서고, 호란이 일어나 인조가 삼고구배를 하고 세자와 봉림대군이 볼모로 끌려가는 국가적인 치욕을 당한 상태였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소중화 사상을 지지하던 우암 송시열이 죽기 전 유언으로 두 황제의 위패를 모시고 제를 지내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후 황하의 물이 만번을 꺾여도 반드시 동으로, 그러니까 조선으로 흐른다. 명이 망했으니 중화의 핵이 우리 조선으로 넘어왔다는 뜻인 만절필동에서 따와 만동묘라 이름짓고 두 황제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9. 우암 송시열의 몰락

여기서 잠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암 송시열이 어떻게 사망했을까요? 바로 사약을 마시고 사망했습니다. 이유는 당시 정국 때문인데요. 당시 왕이 숙종인데, 이 분이 왕권에 도전하는 것을 무척이나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우암 송시열이 장희빈의 소생인 아이를 원자로 책봉하고 세자로 책봉하는데 사사건건 반대했거든요. 이전에도 이런저런 간섭과 반대를 일삼아서 눈 밖에 나서 이미 귀향이 있는 상황에서 왕이 이미 결정한 일을 가지고 왈가왈부 했으니...결과는 뻔했죠. 결국 귀향이 풀려 몰라오던 길에 사약이 내려왔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진답니다. 사약도 한약이다 보니 약이 안드는 사람에게는 정말 안들었거든요. 당시 나이 83세, 요료법이라는 어린아이의 오줌을 마시는 장수법을 시행하던 우암 송시열은 오히려 사약을 마시고 요료법의 부작용이 나아버리는 괴상한 일이 일어났구요. 결국 세 사발이나 사약을 들이키고 사망했습니다. 원래는 사약이 안들면 목졸라 죽이는게 관례였지만, 이 사람이 워낙 거물이다 보니 금부도사가 "영감 제발 죽어주십시오"라고 간청했다는 일화도 전해진답니다.

10. 제 3곡 읍궁암



읍궁이란 명칭의 유래는 중국의 순임금이 죽자 신하들이 활(弓)을 잡고 울었다는 고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읍궁암

(서원을 나와서)

이 앞에 있는 널찍한 바위가 제 3곡 읍궁암이란 바위인데요. 이름의 유래는 우암 송시열이 두 번째로 섬기던 왕인 효종이 북벌의 야망을 이루지 못한 채 운명을 달리하자, 효종을 그리워하며 우암이 이곳에서 목 놓아 울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서 읍궁암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하네요.

학문의 길에서 본다면 학문에 심취할수록 깊어가는 고민이 세차게 흐르는 여울과 너럭바위 화강석에 새겨진 패인 구멍 같다고도 한답니다.

11. 제 4곡 금사담과 암서재



암서재와 금사담



충효절의 석각

계곡 너머로 깎아지른 듯한 절벽위에,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너머에 적은 건물이 하나 보이네요. 저 곳이 바로 암서재랍니다. 주자가 무이산 무이구곡의 중심에 무이정사라는 작은 집을 짓고 자연을 벗삼아 공부하며 지내며 성리학을 완성해갔답니다. 그에 본받아서 우암 송시열 역시 무이정사처럼 화양계곡의 중심에 작은 초옥을 짓고 공부방으로 이용했답니다.

그 아래 흐르는 계곡을 금사담이라고 하는데요. 저 아래에 모래톱이 보이죠? 금사담이란 금빛 모래가 계곡물에 반짝반짝 빛나는 연못 이라는 뜻이랍

니다.

우암 송시열은 평소 공부를 하다가 피곤하면 작은 배를 띄우고 그 위에서 쉬곤 했습니다. 그때 우암 송시열이 어떤 생각을 했을지 여러분도 주변을 한번 쪽 둘러보고 생각해 봅시다.

이 화양계곡하면 석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주변에도 석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저기(충효절의 석각) 쓰여있는 네 글자는 충효절의란 글자로 명태조 주원장의 글씨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 아래쪽에는 ‘창오운단 무이산공’이라는 석각도 있는데요. ‘푸른하늘과 구름이 끊기고 무이산은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명나라가 망해서 중화의 맥이 끊어져 비통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 여덟 글자는 잘 안보일텐데요. 그 이유는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들이 글자를 쪼아버렸고, 글자들을 쪼아버린 일본인은 몇걸음 못걸고 벼락맞아 죽었다는 전설이 전해진답니다.

12. 제 5곡 침성대



침성대



침성대 석각

(화양3교에 서서)

여러분 이 주변을 한번 쪽 둘러보세요. 계곡이 굽이굽이 흘러가는게 보이죠? 이곳이 화양계곡이 가장 잘 보이는 지점 중 한 곳입니다. 저 아래 보이는 암서재와 계곡이 마치 한 폭의 산수화 같네요. 이번에는 계곡 상류 오른쪽 산을 한번 봅시다. 큰 바위들 켜켜이 쌓여 있네요. 저 곳이 제 5곡 침성대입니다. 경주의 침성대 아시죠? 그 침성대에서 따와서 저 바위에 올라 별을 관측할 수도 있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 붙였답니다.

저 침성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 계곡을 이루는 바위들은 대부분이 화강암 인데요. 화강암은 현무암과는 달리 마그마가 분출하지 못하고 오랜시간 꼭꼭 눌리면서 천천히 식어서 단단하게 굳어 생긴 암석인데요. 땅속 깊은 곳에 있던 화강암이 지표로 꿰뚫고 올라오게 되면 위에서 누르는 거대한 힘

이 사라지게 되어 화강암 기반암 자체에 일종의 균열인 절리가 형성되죠. 그 균열 사이로 수분이 스며들면서 점점 균열이 넓어져서 한 덩어리였던 바위가 따로따로 나뉘어지고, 여기에 시간이 지나면서 비바람에 부스러기들이 깎이면서 저렇게 탑처럼 바위가 쌓여있는 모양이 된답니다.

학문의 길에서 첨성대를 보자면 해안을 가지고 넓게 보면 멀리 볼 수 있어 선비 나름의 깊이를 가지고 독자적인 학문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도 하죠.

조금만 다시 돌아가서 첨성대 등산로로 잠깐만 올라가 봅시다. 꼭 보여드리고 싶은게 있거든요.

13. 만절필동 석각과 비례부동 석각



만절필동



비례부동·대명천지 송정일월 석각

(첨성대 아래로 이동)

암서재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화양계곡 하면 석각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이 곳에 붉은 글씨로 세겨진 글자 보이시나요? ‘만절필동’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만절필동. 만동묘의 명칭이 바로 이 ‘만절필동’ 석각에서 비롯된 이름입니다. 뜻은 황하의 물이 만번을 꺾어도 반드시 동쪽, 그러니까 조선으로 흐른다. 명이 망했으니 중화의 핵이 우리 조선으로 넘어왔다는 뜻으로, 여기서 따와서 만동묘라 이름짓고 두 황제의 위패를 모신 거랍니다.

저 글을 쓴 사람은 임진왜란 이후의 선조입니다. 옆에 ‘선조대왕 어필’ 이라고 적혀 있네요. 여기서 우암 송시열이 얼마나 우리나라의 자존심을 드높이려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부터 진짜 화양계곡을 진의를 관통하는 석각을 보려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첨성대 아래 계곡으로 이동)

저기 저 석각이 보이시나요? 오른쪽부터 보면 네모진 구멍이 하나 나있죠?

예전에는 ‘옥조빙호’라고 석각이 세겨져 있었지만 누군가 도둑질해 갔다네요. 옥조빙호의 뜻은 ‘임금의 면류관에 다는 옥과 얼음을 담은 항아리’로, 임금은 깨끗하고 청렴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아래, 석각이 있죠? ‘대명천지 송정일월’이라고 읽구요. 뜻은 ‘대명의 땅과 하늘, 송정의 해와 달’이라는 뜻으로 명나라 멸망 이후 조선에선 실록 등에 황제의 연호를 쓸 때 몰래 청나라 황제의 연호가 아니라 명나라 마지막 황제인 의종 송정제의 연호를 사용했답니다. 위의 석각이 말하는건 ‘지금은 청나라가 중국을 지배하고 있지만, 조선의 상국은 영원히 명나라다.’ 라는 뜻을 담고 있죠. 말하자면 반청사상을 강하게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번에는 왼쪽 석각을 한 번 볼까요? 이 석각, 비례부동 네 글자가 화양서원의 모든 진의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글씨는 명 마지막 황제 의종의 글씨로, 뜻은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우암 송시열의 삶이나, 반청사상도, 북벌도, 모두 이 네 글자에 다 포함되는데요. 성리학 자체가 따로 예학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를 중시했고, 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기 위해 망해가는 명나라를 따랐고, 청나라에게 저항했으며, 끝내는 북벌운동이 일어났죠. 우암 송시열 선생의 생애도 그랬답니다. 어떻게 보면 꼭 막힌 듯이 예를 강조하며 그에 어긋나는 일이라 생각하면 왕에게라도 반발하는 삶을 살았으니까요. 우암 송시열이 이곳을 화양동이라 개칭하고, 공부했던 것도 이 예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답니다.

13. 제 6곡 능운대와 채운사



능운대



채운사 전경

저 곳에 보이는 바위가 바로 제 6곡 능운대입니다. 바위가 마치 구름을 뚫고 솟아있는 것 같다는 의미에서 이름붙인 건데요. 솔직히 조금 과장된 것 같아 보이네요. 지금은 모습이 이렇지만 과거에는 우리가 딛고 있는 길이 없었을 때 저 아래 계곡에서 이 웅장한 바위를 봤다면 정말 웅장하지 않았을

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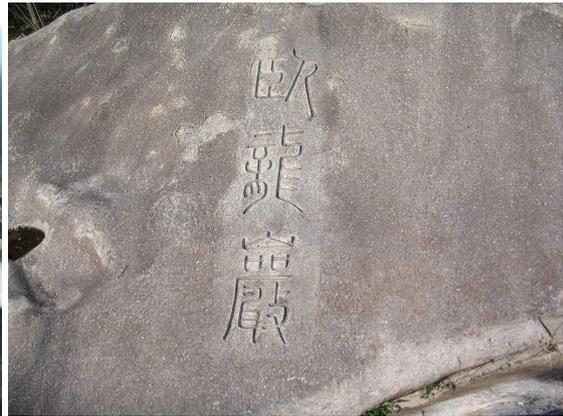
능운대 옆으로 난 길은 화양동에 존재하는 채운사 라는 절로 가는 길인데요. 저기 보이는 간판에 써 있듯이 ‘구름에 물든 절’이라는 뜻입니다.

채운사는 원래 방금 지나온 첨성대 주변에 있던 절이고, 원래 이곳에 있던 절은 환장암이라는 암자였답니다. 이 환장암의 창건주는 바로 우암 송시열 이였구요. 유학자가 사찰을 만들다니 이상하죠? 당시 양반들은 승려를 묘나 사당을 지키는 역할로 많이 데려다 썼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암 송시열도 당시 그동안 수집한 명 황제의 어필이나 왕의 어필 등 이런저런 유물들을 모아 암자를 짓고 승려들에게 지키게 했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들어 환장 암에 주둔하던 의병들을 공격하던 일본군에 의해 전소되었다가 과거 첨성대 아래에 있다가 홍수로 파괴된 채운사를 이곳에 재건했다고 전해진답니다.

14. 제 7곡 와룡암



와룡암



와룡암 석각

저 아래 바위가 바로 제 7곡 와룡암인데요. 바위가 용이 누워 있는 것만 같다고 해서 와룡암이라고 이름붙였답니다. 학문의 경지로는 비로소 학문의 완성에 이를 수 있는 경지인 신령스러운 용, 그러나 아직은 승천하는 용이 아닌 누워 있는 용의 모습이라 완성의 경지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를 말한다고 한답니다.

15. 제 8곡 학소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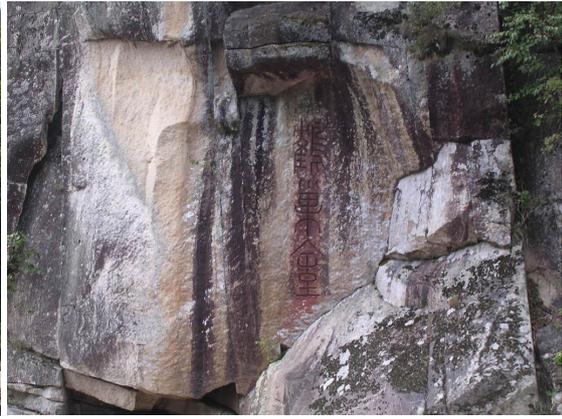
(철다리를 바라보며)

저 위로 올라가서 한번 볼까요?

저기 보이는 저 절벽이 바로 제 8곡 학소대입니다. 학이 알을 낳고 살았다는 절벽인데요. 높은 절벽 틈 사이사이마다 자란 소나무와 절벽 아래 깊은



학소대



학소대 석각

소의 녹색을 띄는 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네요. 옛 선비들이 봤다면 신선세계를 떠올렸을 것 같네요.

마치 학문의 높은 경지에 다다른 신선처럼 여유로운 선비의 완숙한 모습이 상상되네요.

16. 제 9곡 파천



파천



파천 석각

(파천 입구 앞)

이 아래가 이 화양동의 마지막이자 화양동에서 가장 아름답다는 제9곡 파천입니다.

(걸어내려가며) 파천, 화천, 파곳 이라고도 하죠. 이 이름의 뜻은 널찍한 흰 바위 위로 세차게 흐르는 계곡물이 부서지는 모습이 마치 용의 비늘을 꺾어 놓은 것만 같다 하여 붙여진 이름인데요. 요즘에는 마치 꽃과 같다고 해석해서 화천이라고도 부른답니다.

(파천 도착)쪽 한번 둘러보세요. 워낙 아름답고 놀기 좋기 때문에 신선들이 이 곳에서 술잔을 나누었다는 전설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옛 사람들도 똑같이 생각했는지 화양동에 놀러오면 반드시 이곳에 들러 풍류를 즐겼다고 한

답니다. 한번 주변 바위들을 한 번 둘러보세요. 하면 안되는 일이지만 바위에 이름을 세기거나 낙서하는 짓을 많이 했던 것처럼 ‘어디 감사 아무개 왔다감’같은 글이 곳곳에 세겨져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혹자는 한 마리의 거대한 용이 승천을 준비하는 것만 같으며 물결이 높고 클수록 더욱 완전한 모습을 보이는 그 모습은 분명 학문의 최고경지에 다다라 비로소 학문을 완성한 모습같다고도 했습니다..

17. 정리하기

지금까지 화양구곡과 우암 송시열을 중심으로 계곡을 둘러 보셨는데요. 돌아가면서 한번 더 둘러보시고, 제가 알려드렸던 것들을 한번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화양계곡은 속리산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소중한 자연·문화자원입니다. 국립공원을 탐방하실 때에는 속리산처럼 산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관, 생태, 인문, 지리, 역사 등으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아름다운 자연을 미래세대에게 건강하게 대대손손 물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에 다시 찾아 주시면 더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만들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